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78)

‘수백명 학살 ...한국판 킬링필드’ 규명 주목

입력 : 2007. 08.23. 00:00:00



▲4·3당시 최대 학살터인 옛 정뜨르비행장 일대에 대한 유해발굴작업이 본격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주4·3연구소 제공

"일본군 비행장이 4·3 최대 학살터로"

사건실체 파악·유족찾기 등 관심 집중

#정뜨르비행장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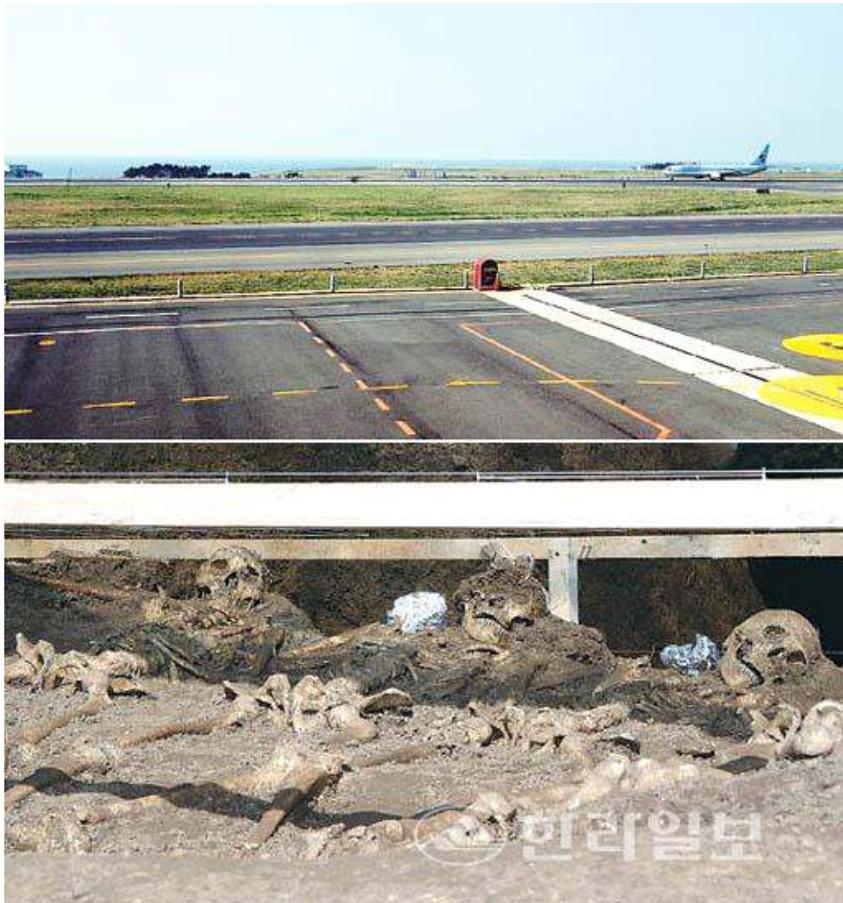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은 제주도 관문인 제주시 지역에 군사비행장을 건설한다. 이른바 옛 정뜨르비행장(제주서비행장)이 바로 그것이다. 정뜨르비행장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부지의 일부로 편입돼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전신인 것이다.

정뜨르비행장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에 이어 제주도에 두 번째로 건설된 일본군비행장이다.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 국민학교 학생부터 청·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강제동원돼 노역을 해야 했다. 정뜨르비행장은 말 그대로 제주도민들에게는 고난의 역사현장이다. 동시에 최대의 '집단학살 암매장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현장이다. 일본군이 일(日)본토 방어를 위해 건설한 군사비행장에 묻힌 무고한 주민들의 학살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사업

이 21일 개토제와 함께 본격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뜨르비행장과 불법학살

정뜨르비행장을 비롯 제주4·3시기 군인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불법자행된 집단학살은 소위 '한국판 킬링필드'(Killing-Field)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군비행장이 제주4·3시기에는 최대의 불법학살 무대가 된 것이다.



▲유해발굴이 이뤄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사진 위). 제주시 별도봉 일본군 갱도진지에서 발굴된 유해/사진=이승철기자

정뜨르비행장에서 얼마나 학살됐을까. 지금까지 무고한 주민들이 얼마나 학살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4·3관계자나 당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곳에서는 8백 명 안팎의 학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10월2일에 있었던 소위 군법재판 사형수 2백49명의 총살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예비검속자 5백여 명이 트럭 10대에 실려 이곳으로 끌려와 집단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다.

때문에 이번 발굴에서 과연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골이 확인될지, 이를 통해 학살실체에 대한

단초나마 확보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발굴 어떻게 진행되나

정뜨르비행장 학살암매장 추정지는 현재 제주공항 부지에 편입돼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남북활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발굴단은 제주43연구소와 제주대학교 및 고고학전문발굴단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발굴은 1차로 예비검속 과정에서 희생돼 암매장된 곳으로 알려진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의 북서쪽 지점을 대상으로 내년 6월초까지 이뤄진다. 2차는 군법회의 관련 희생자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남북활주로 북동쪽 지점을 대상으로 내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발굴과정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활주로 일대에서는 지난 1970년대 활주로 확장 및 복토공사 도중 유해 일부가 발굴됐으나 관계당국의 지시로 그대로 땅 속 깊이 매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동안 공항 확장 및 복토공사로 인해 4·3 당시보다 지표가 10~15m 정도 높아진 상태여서 발굴과정에 활주로 함몰을 방지하기 위한 토목공사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함께 발굴단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 체질인류학과 법의학 전문가가 합류한 가운데 발굴·수습·감식을 한다. 발굴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기 위한 채혈작업도 함께 할 계획이다.

집단학살 발굴의 과제와 의미

이번 정뜨르비행장 발굴은 집단학살의 실체를 밝히고, 유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주요한 과제중 하나다.

정뜨르비행장 발굴은 4·3의 실제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굴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해가 확인될 지, 또 어떻게 사후처리가 이뤄질지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관련 유해발굴사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습된 유해는 DNA검사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유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나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제주시 별도봉 일본군 강도진지 등 5개소 발굴에서 수습된 유해들은 사업종료 후에야 유족들을 대상으로 채혈작업이 이뤄지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주43연구소 유해발굴팀의 박찬식 연구책임자는 "4·3 당시 옛 정뜨르비행장에서의 학살·암매장 사건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주도민들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 /

정뜨르비행장 일대 방어 위해 일본군 주둔 대규모 갱도 구축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 편입)은 일본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을 시작하면서 건설한 군사비행장이다. 1942년 무렵 일본 육군비행장으로 처음 건설되면서 1944년 5월 준공됐다. 준공된 뒤에도 주민들을 동원해서 은폐와 엄폐, 때를 입히는 활주로공사 등을 계속했다. 당시 남북 활주로는 1,800×300m와 1,500×200m 규모로 만들어져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했다.

당시 일본군은 정뜨르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켰다. 일본군 제96사단 주력부대가 정실마을 일대에 배치돼 제주시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 오름에 대규모 갱도진지 등을 만든 것이다. 일본군은 정뜨르비행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오등봉~민오름~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 등에 대규모 갱도진지를 건설하고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주저항진지 라인을 구축했다.

최근 본보 특별취재팀의 집중 탐사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제주시 서부권 오름군의 갱도진지는 일본군이 제주도를 최후의 전쟁기지로 삼았던 생생한 역사현장이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